투어 번호
LKZV76ACD6

동쪽으로의 탈출 (10일)

10일 · 9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0일간의 투어는 네고보에서 시작하여 자프나 반도까지 올라갔다가 동쪽 해안의 트린코말리를 거쳐 문화 삼각형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한 후 콜롬보에서 마무리됩니다. 북부의 타밀 문화유산지, 동쪽 해안의 해안 시간과 고래 관찰 및 섬 방문, 그리고 문화 심장부의 고대 도시, 동굴 사원 및 바위 요새를 결합합니다.

여행객들은 한 번의 여행으로 스리랑카의 광범위한 단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힌두교 및 불교 사원, 트린코말리 해역의 고래 관찰 사파리, 미너리야의 건기 지역 코끼리 사파리, 시기리야 바위 등반, 그리고 시기리야 인근 마을 경험(소 마차 탐승, 카타마란 여행, 가정식 점심 포함). 투어는 비행기로 귀가하기 전 콜롬보의 랜드마크 투어로 마무리됩니다.

이 투어는 전반에 걸쳐 Lakpura® 전용 기사 가이드가 에어컨 완비 차량으로 진행하며, 공항 이동, 각 정거장 간 이동, 그리고 포함된 방문 및 사파리 동반을 담당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BIA → 네곰보

도착일: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여행객을 맞이하여 네곰보로 이동한 뒤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Day 2 네곰보 → 자프나

북쪽으로 자프나까지 이동하는 여정에는 칠라우에서의 정차가 포함되며, 이후 반도로 이동하여 도시의 사원들과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문네스와람 코빌

칠라우 인근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 힌두 사원 단지로, 최소 서기 1000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며 라마야나와 그 영웅 왕 라마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지역에서 시바 신에게 봉헌된 다섯 개의 고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Leon Meerson · CC BY-SA 2.0

자프나 시내와 사원들

북부 반도의 중심 도시인 자프나에는 날루르, 나이나티부, 마비땁부람 등 4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힌두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치 포트, 전쟁 기념비, 사라스와시 마할 도서관, 나가디파 비하라, 그리고 자프나의 마지막 왕인 칸킬리 1세의 궁전 등이 있습니다.

Day 3 자프나 → 자프나

자프나 북쪽에 위치한 나가디파 섬으로의 당일 여행으로, 신할라인들에게는 나가디파로, 고대에는 마니팔라밤으로 알려져 있으며, 뱀을 숭배했던 나가족의 터전이었습니다.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야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한 16대 불교 성지 중 하나로, 부처가 스리랑카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지며, 독특한 건축양식과 주변의 전설들이 함께 전해집니다.

derivative work: Taprobanus (talk) NainathivuNahaVihara.JPG: Regunathan Umapathy · Public domain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

최소 2천 년의 역사가 기록된 힌두 사원으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인드라 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네 개의 고푸람과 여러 만다빔, 사원 전차를 포함한 드라비다 양식 건축이 특징이며, 세계에 단 64개뿐인 샤크티 피담 중 하나입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Day 4 자프나 → 트링코말리

여정은 남동쪽으로 이어져 트링코말리로 향하며, 오후에는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사원과 요새를 둘러봅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 성자들이 찬양했던 고대 사원으로, 벽화에는 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동굴 사당은 약 기원전 1580년, 본 사원은 약 기원전 400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경배했다는 라바나 왕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프레더릭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원래 코네스와람 사원에서 가져온 석재로 건축했으며, 이후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해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5 트링코말리 → 트링코말리

해양 공원 방문과 트링코말리 내륙에 위치한 고대 불교 유적지 오후 방문을 결합한 하루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작은 피전 섬과 큰 피전 섬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번식하는 바위비둘기와 다양한 산호 및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AntanO · CC BY-SA 4.0



티리야야 와타다게

과거 타밀 불교의 중심지였던 마을로, 부처가 두 명의 상인에게 머리카락 유물을 전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기리하두 세야 탑과 마지막 반니야르 족장 중 한 명의 요새 유적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6 트링코말리 → 트링코말리

해안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찰 사파리로 하루를 보냅니다.



고래 관찰 사파리

스리랑카 남쪽 해역에서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 등을 찾아보는 5시간짜리 보트 투어로, 포장된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자격을 갖춘 자연 해설사가 동행합니다. 이후 저녁에는 호텔에서 자유 시간을 즐깁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7 트링코말리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여정은 내륙으로 이동하여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를 방문한 뒤, 담불라로 가는 길에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저녁 사파리를 즐깁니다.



폴론나루와

서기 10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입니다. 유적으로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못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이 도시의 황금기로 여겨지는 통치를 했던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공원을 가로지르는 3시간짜리 저녁 사파리로,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8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이날은 시기리야 바위 등반, 인근 마을 체험, 그리고 담불라 석굴 사원 방문으로 구성됩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샤파 왕이 건설한 5세기 바위 요새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장식된 입구를 통해 들어갑니다. 등반 중에는 유명한 벽화, 계단식 정원, 현재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과거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투어

소달구지 타기, 고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보트 체험, 논밭 산책, 전통 요리 시연, 그리고 연잎에 담겨 나오는 가정식 점심으로 구성된 마을 체험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담불라의 황금 사원으로, 부처의 생애를 묘사한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부처와 신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신성한 왕의 동굴과 대왕의 동굴이 포함됩니다. 단지 밖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9 담불라 → 콜롬보

마지막 투어일에는 스리랑카의 상업 수도인 콜롬보를 탐방합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 박물관 등의 명소와 함께 독립 광장, 경마장 지역, 쇼핑 구역을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0

Day 10 콜롬보 → BIA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낸 뒤, 여행객들은 체크아웃하고 출발 항공편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